

경영자 인터뷰 / (주) 유니온시스템

송 병 남 사장



● 약력 : 1937년생, 연세대 행정대학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국내 정보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는?

우리의 정보산업이 미래 정보 사회에 대비,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산업 구조고도화를 이루어 일반국

민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고 순기능을 최대화,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 정보산업에 대한 분류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체제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정보산업에 대한 개념인

식의 여건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덕연구단지과 같은 기초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정보산업의 중요성을 볼 때 하루빨리 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식인의 관심과 신기술개발의 집중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해 나아가는 산업형태에서 이제부터는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어 경쟁력을 배양해 나아가야지 어떤 특수기관이 주도해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유니온시스템의 사업전략을 소개하신다면?

과학문명이 산업발전에 한 역할을 형성하게 된 것은 Computer, 전자통신 분야가 발달되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야말로 세계는 Globalization화 되어있는 상태에서 정보화사회를 조성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즉 정보화사회라고 하는 것은 Computer와 Communication을 결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정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여서 우리는 해결의 실마리를 첫째로는 정보화 산업의 촉진에서 찾아야 합니다. 즉 우리산업이 자동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기술개발과 자동화를 확대해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사무자동화 통신 등으로 비즈니스의 효율과 사업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Computer와 통신을 통한 정보

산업의 SI(System Integration)화를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정보산업이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산업의 발달사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 민간업체는 인사·재무·생산관리 등과 관련해서 H/W, S/W를 개발해 왔는데 이러한 분야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또 이것을 산업분야에서 응용을 해왔습니다. 그 이상의 기술은 High Level System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정보산업분야의 수요가 충분치 않았었고 그러다보니 업계의 노력이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민간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Computer분야는 이미 개방이 되었다고 보고 정보산업의 기간산업인 통신망은 외국업체가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젖줄을 내어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민간업체는 기술경쟁력을 하루빨리 갖추어 대비해야 합니다.

올해의 사업목표를 소개하시다면?

우리는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기술개발에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내의 대형 Project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광 Filing System에 의한 문서관리, 도면관리 시스템 등을 판매 확대,

화상연속시스템의 중점개발 및 자국 정보망사업, 통합시스템사업 정착화(CIM, IBS 등의 진정한 S·I), 교육사업 등 남보다 한발 앞서 나아가는 자세로 연구소의 기능을 최대화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중점개발분야는?

정보처리 및 자동화 분야인데, Computer, PC를 이용하여 S/W를 개발하는 것이고 Consulting에서부터 응용 System까지 자동화라는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CIM(컴퓨터 전산통합)System을 추구하는 것이 역점사업이고 정보산업을 모든 Computer 지식, Consulting, 설치개발능력, H/W 선택설치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System을 갖추는 S·I산업을 정착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경영여건에 대한 전망과 마케팅 전략은?

UR, GATT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마케팅전략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S/W는 어차피 개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의 관심은 전자통신망입니다. 기술우위를 확보해서 경영여건에 대한 문제를 극복할 것인데 한 예로 금융,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줄면 자연스럽게 기술을 가진 자가 유리한 것입니

다. 이러한 정보산업은 제품을 파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User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User를 이해시키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내의 전사원들이 Salesman化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산업계의 인력수급은 어떠 하신지?

대학과 대학원과정에서 정보산업분야의 정원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교수와 장비도 적극적인 투자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현재 인구집중 억제책으로 지방대학에만 정원을 늘리는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교육도 선진국에 비해 늦은감이 있는데 조기교육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입니다.

평소 갖고 계신 경영 철학은?

불확실성의 시대 특히 국제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만이 살 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일이 어느 조직에서도 중요합니다.

21세기 정보혁명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온 열정을 다 쏟을 것입니다.